인봉

신장 화려하게 차려 입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깔끔하다. 특별히 예쁘지는 않는 갸름한 얼굴은 살짝 타서 검고 두 눈은 작다. 눈썹은 얇고 기울어져 있고 검은색 머리에 노란색이 곳곳에 물들어 있다. 머리는 꽃천으로 메어 포니 태일을 하였다. 안색은 불규칙적인 생활습관으로 창백하다.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후어머니와 결혼하게 된다. 새로운 가정이 생기므로 인하여 여동생이 생기고 인봉은 일찍이 성숙해진다. 후어머니를 도와 일해주고 동생을 돌봐 준다. 그러나 인봉의 기억속에서 아버지는 언제나 이상한 눈길로 자신의 몸을 바라보았는데 여동생이 있는 덕에 눈길이 적어져 편했다.

혜진

어린 티가 나고 긴 속눈썹과 같이 크고 예쁜 두 눈에는 총명함과 영리함이 들어있다. 검은 머리에 눈썹은 곡선미가 있어 신월 같았고 꽃천으로 멘 머리는 트윈 태일을 하여 무척 귀여웠다. 후아버지가 계속 혜진을 훔쳐보는 것 같았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자 더욱 미친 듯이 하는데 심지어 매일마다 폭행당 할 정도이다. 유일하게 잘해주던 언니 조차도 아버지가 혜진을 강간하기 시작한 후로부터 무관심해지고 바라보기만 한다. 아버지에 대한 원한은 쌓이고 언니의 무관심은 혜진의 마음속에 복수의 씨앗을 심게 되었다.

아버지

40대 중반의 중년남성

얼굴은 말랐고 광대뼈가 매우 높았고 술주정을 많이 하는 원인으로 안색이 어둡다. 얼굴에는 여드름이 잔뜩 나 있고 뒤 목은 주름이 가득 했다. 이마는 좁고 잔 주름이 나 있고 수염과 눈썹은 굵고 고르지 않았다. 미릉골은 높고 눈길이 흉하여 악기가 가득 찼다. 첫 결혼을 하여 딸을 얻고 아내가 돌아가자 재혼을 하게 된다. 딸이 한 명 더 많아지고 가정의 기둥으로서 집안을 돌보지 않고 모든 불만을 아내와 딸에게 풀어 가정에 고통을 준다, 소아 성애증이 있어 아내가 돌아간 후 딸들에게 손을 댄다.

이야기개요:

인봉은 마당 나무아래서 서서히 깨난다.

눈 앞 모든 것이 눈에 익어 본 적이 있는 듯하다.

잠시 고민하다 집으로 들어간다.

큰 객실이 보이고 두 방이 보이는데

방마다 단서들이 남겨져 있다.

단서를 찾은 인봉은 자신과 여동생이 아버지에게 살해당 한 사실을 알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죽기 전 플래시백이다.